

SSamzie Space Studio Program_ Open Studio: 2006. 3. 17~3.23 | Exhibition: 2006. 3. 17~4.4

THE 7th

OPEN STUDIO

EXHIBITION

2006 3.17~23

제 7회 삼지스페이스 오픈스튜디오전

아다드 하나

Adad Hannah



선물, 싱글채널 비디오, 5분, 2002

Tribute, single channel video, 5', 2002

“아다드 하나는 무성비디오 프로젝트 작업인 **Stills** 라는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리즈 작업들은, 19세기경 배우나 모델들이 고전회화의 명장면에 나오는 자세를 직접 장시간동안 취함으로써 살아있는 조각이 되는 일종의 연극놀이인 ‘타블로 비방(tableaux vivants)’을 연상시킨다.”

-스티브 레인크, 9th Mois de la Photo의 도록 <Image and Imagination>

“아다드 하나의 작업은 처음에는 우리의 눈에 정지된 이미지로만 보여지다가 마침내 미세한 움직임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정지된 이미지인 사진보다는 오히려 비디오작품이 가지는 특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간의 타협적 관계의 역사를 돌아켜 보면, 그의 작업 속에서의 움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스틸 이미지 속에서 움직임이나 생물체의 작은 신호를 찾아보게끔 한다.”

-알렉산더 로버슨, Surface Tension, CV Photo, #67, 06/2005

한 신사의 초상화, 싱글채널 비디오, 5분, 2002
 Portrait of a Gentleman, single channel video, 5', 2002



"Adad Hannah is best known for a series of silent video projections collectively titled **Stills**. Stills are reminiscent of tableaux vivants, a 19th century theatrical entertainment in which performers/models struck a pose, often derived from classical painting, and held it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as living statues."

-Steve Reinke in *Image and Imagination*, Catalog for the 9th Mois de la Photo, edited by Martha Langford. Montreal: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2005.

"On the very threshold of immobility, Adad Hannah's works are initially interpreted by our eyes as being static images-only to eventually reveal subtle movements that betray their nature as works of video rather than of still photography. Recalling a history of negotiated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ic and moving image, these revelations of movement cause us to scan his still images for discreet signs of motion and life."

-Alexandre Robertson in *Surface Tension*, CV Photo #67, 06/2005.



마스카라 지우기, 싱글채널 비디오, 6분 55초, 2003
 Mascara Removal, single channel video, 6' 55", 2003



Cheezies, 싱글채널 비디오, 6분 12초, 2004
 Cheezies, single channel video, 6' 12", 2004

쌘지스페이스에서의 거주작가 과정 동안 나는 새 프로젝트 'Recast and Reshoot'의 첫 단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로댕의 최고 명작 중 하나인 '칼레의 시민'을 필름과 비디오투를 통해 재현해내려 한다. 최종 작품은 '칼레의 시민'의 주형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도시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의 시리즈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첫번째 도시로서, 가장 최근의 주형을 가지고 있는 로댕 갤러리가 위치한 서울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작업을 위해, 1347년 프랑스의 칼레에서 6명의 용감한 특권층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도시를 지켜낸 사건을 재현해낸 이 조각품을 새로이 제작하고자 한다. 나는 'Recast and Reshoot'을 통해 이 숭고한 예술 작품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2006년에 과연 누가 도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본 작업에서는 본래의 시민들에 해당하는 현대적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 로댕의 조각을 주형틀이나 자료로 사용하고, 6명의 사람을 모델로 하여 살아있는 조각이나 타



쌘지스페이스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미술학원의 간판
Sign on door of art institute 100 meters from SSamzie Space

블로 비방(tableaux vivants)을 연출하고 촬영할 것이다. 서울 이외에도 프랑스 칼레,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로댕의 '칼레의 시민'을 소장한 여러 도시에서 이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도시 환경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되풀이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이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조각품이 한 도시가 문화적 자화상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탐구하는 한편, 여러 다른 종류의 시민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During my residency at SSamzie Space I am working on the first phase of a new project entitled **Recast and Reshoot**. For this work I will shoot a restaging of one of Rodin's best-known works, *The Burghers of Calais*, on film and video. The final work will consist of a series of projects created in several cities that house one of the twelve casts. I will begin my series with the final cast, which dwells in Seoul's Rodin Gallery.

For this project I am seeking to recast a sculpture that represents an event that took place in Calais, France in 1347 when six brave citizens of considerable privilege put their lives on the line for the sake of their city. In **Recast and Reshoot** I reflect on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is revered work of art. In 2006 who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mselves for the sake of their city? Upon identifying modern equivalents of the original Burghers I will create and document living sculptures, or tableaux vivants, using Rodin's sculpture as the mold or source and six people as the models. I plan to carry out this same project in several cities where casts of *The Burghers of Calais* stand, including Seoul, Calais, Paris and Los Angeles. By reproducing this project in several urban contexts I hope to speak about different types of citizenry, exploring the role that such an iconic yet anachronistic sculpture plays in the formation of a city's cultural self-image.

sponsored by

Canada

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Québec

HanYang
www.hpmac.co.kr